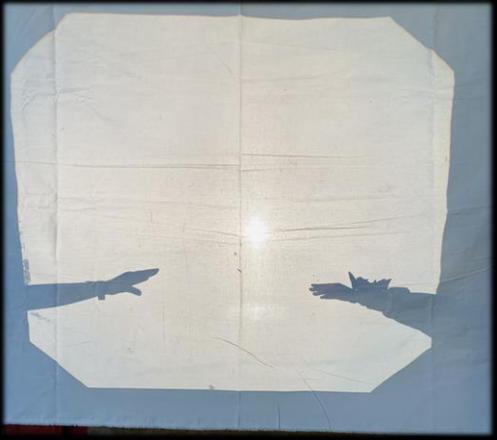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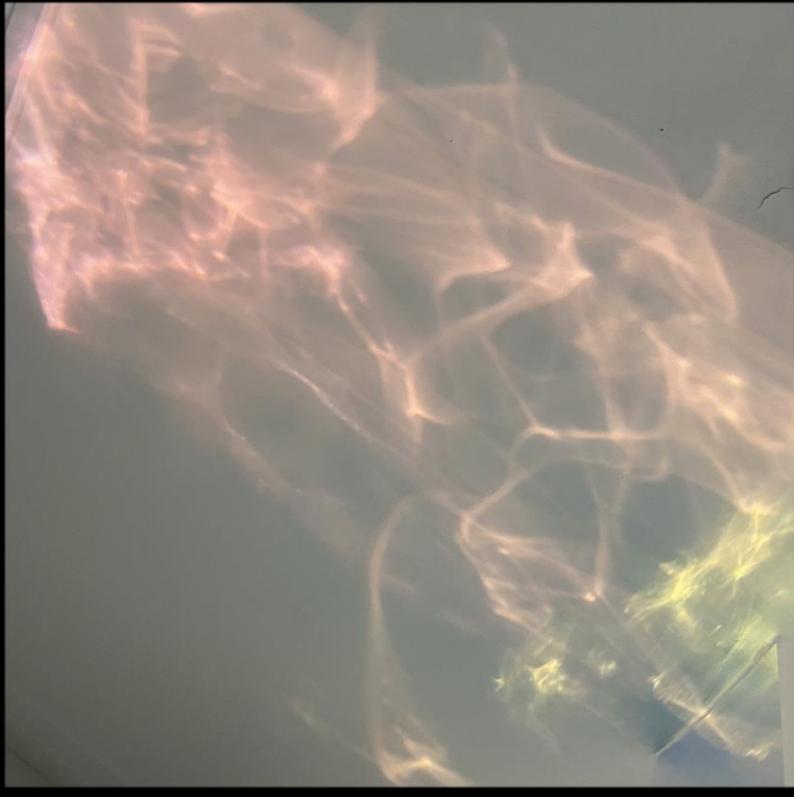


빛과 그림자



그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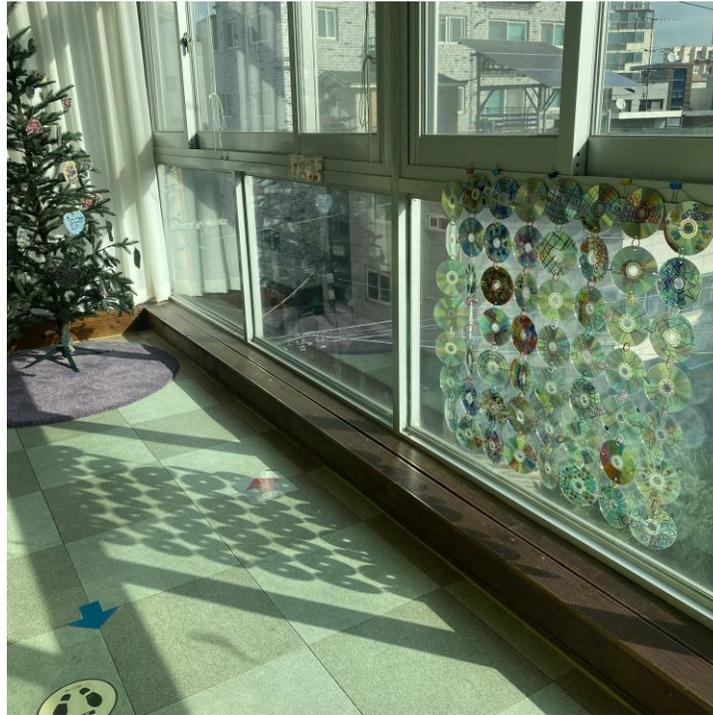
를 발견했어요



빛은 사람과 식물, 동물 모든 유기체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빛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얘들아, 여기 좀 봐, 그림자가 생겼어!

우리 유치원은 통 창문으로 빛이 하루 종일 들어옵니다. 복도의 긴 유리창에 그려진 그림들이 빛을 통해 복도 바닥에 그림자가 되었고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우리가 그린 그림이 바닥에도 있다며 그림자를 탐색하게 됩니다.



“얘들아, 이거 봐! 책에 빛이 모였어”



그러던 도중 교실 창문으로 들어온 눈부신 빛이 책에 반사되는 모습을 발견한 아이들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항상 함께하는 빛에 신비함을 느끼며 빛과 그림자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빛’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요...

여름의 쨍쨍하던 빛은 어느새 사라지고 가을이 주는 근사한 가을빛이 우리를 맞아줍니다.

“여름 햇빛은요, 뽀족한 느낌이에요.”

“여름처럼 쨍쨍한 해!”

아이들은 빛으로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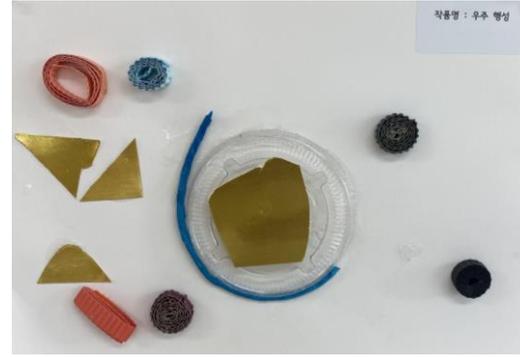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공의 빛과 원래 있었던 자연의 빛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손전등은 딱 누르면 켜져요. 끄면 꺼져버리고요.”

“태양에는 버튼이 없잖아요. 켜다 껐다 할 수 없는게 달라요.”

“어? 라이트 테이블도 그런데.”

빛의 이미지를 그리다



빛을 떠올리면 친구들은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나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빛의 이미지를 표현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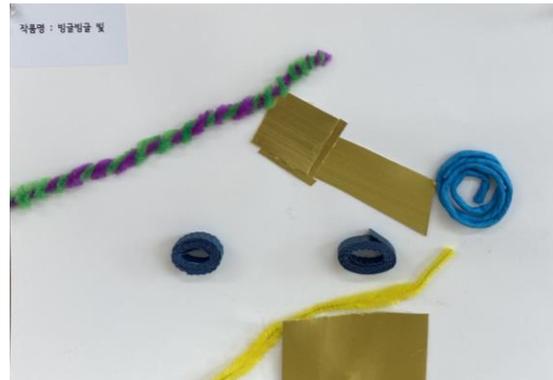
“빛은 여러 곳을 비추어주어서 복잡한 미로 모양일 것 같아요.”

“반짝반짝 보석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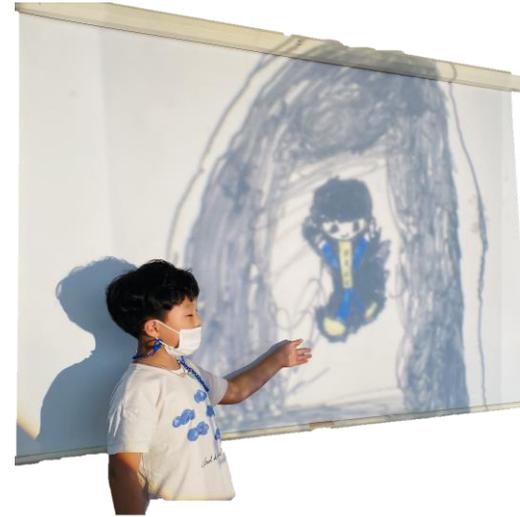
“불빛을 찾는 나침반 같아요.”

“눈이 부셔서 저절로 눈이 감겨요.”

“타오르는 느낌이 나요.”



빛이 없다면?



이런 빛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면...

“신호등도 못 보고 횡단보도도 안보여요.”

“어두워져서 무서워요.”

“예쁜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다 안보이니까.”

“유치원 오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못와요.”

“사고가 많이 나요. 우리가 빛을 만들어요.”



빛이 없어지면 우리가 만들면 된다는 슬기튼튼 2반 아이들의 생각!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 늘 당연한 존재이자 자원이었던 빛의 존재를 다시 생각해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매체물들로 더욱 풍부한 빛 놀이를 경험해보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빛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해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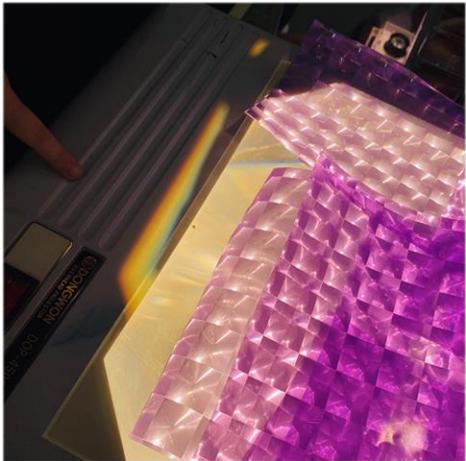
교실 속 무지개



“CD에 빛을 비춰보면 무지개가 생겨요.”
“TV에 빛을 비추면 동그란 모양 무지개가 생겨요.”



“빛을 천장에 비추면 2개의 무지개가 생겨요.”
“CD를 물속에 넣고 빛을 비추면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는 어디 있을까요?

비가 오고 난 후에 볼 수 있었던 무지개를
손전등을 이용해 직접 만들어줍니다.

빛으로 놀이하다



"빛 위에서 쌓으니까 더 멋져~"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겨 "



빛을 내는 다양한 매체물들을 모으고, 좀 더 가까이, 좀 더 멀리 다른 눈으로도 빛을 관찰합니다.

빛의 투과와 반사



“투명한 색깔 종이를 비추면 그림자 색이 보여”

“투명한 종이는 빛이 통과 할 수 있는데 색지는 빛이 통과하지 못해서 그런 거 같은데?”



투명한 것의 그림자에는 색이 있어!!

우리가 알아냈어요! 투명하다는 건 반대편이 다 보이는거예요.
그리고 투명한 것에는 그림자에 색이 있어요.

“어떻게 빛이 투명종이를 통과해?”



“투명한 거야! 눈에 갖다 댔을 때 친구가 보이는 거!”



빛이 투과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비교하며 다양한 물체와 나의 그림자를 탐색하며 빛과 그림자의 관계에 점점 흥미와 관심을 보입니다.

그림자를 발견하다

“멋진 자세를 하니까 그림자도 멋져!”



“우리가 앉으니까 그림자도 앉았어”



“그림자 위치가 계속 바뀌네?”

친구의 그림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림자가 펭귄 같다”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움직여”



“그림자가 엄청 커”



그림자의 변화



아이들은 빛의 위치를 바꾸어 가며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림자 특징을 하나 둘 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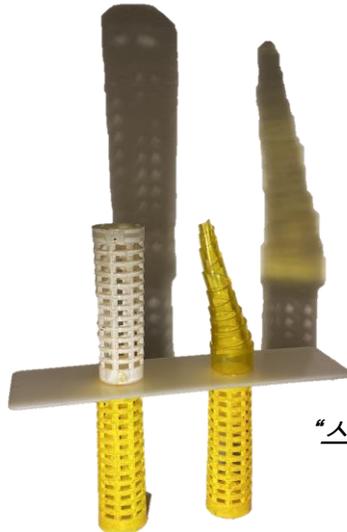


“어! 그런데 이것 좀 봐. 빛이 벽이랑 가까워지면 그림자가 커져”



“빛이 멀리가면 그림자가 작아져”

그림자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해!



“스크린 앞으로 가면 커지고 뒤로 가면 작아져!”



그림자로 놀이해요



그림자를 만들어보자!!



빛과 어둠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태와 모습의 그림자를 경험하고 놀이하며 나와 늘 함께 하는 그림자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냅니다.

"내 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었어~"
"그림자를 따라 그려보자"
"손가락으로 동물도 만들 수 있어!"

그림자 퀴즈 놀이

“등껍질이 있어!”



어떤 그림자일까?

아이들은 그림자와 조금씩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림자의 어떤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될까요?

“다리가 4개인 동물이야!”



“나는 지금 9시야”



“소리를 내는 동물이야”



“난 날개가 달렸어”



“산 속에 살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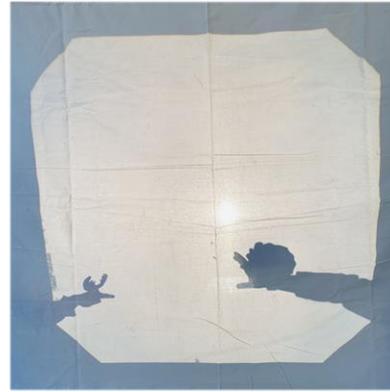


손 그림자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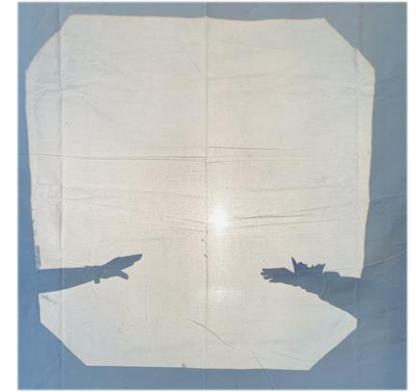
자신의 손을 이용해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며 그림자 놀이를 합니다.

손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난 등껍질이 있는 거북이야”

“난 물 속에 사는 상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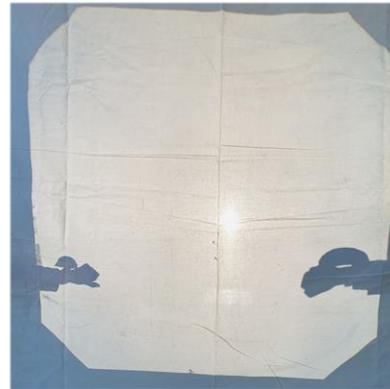


“난 뽀족뽀족한 고슴도치야”



손으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종이로 그림자 팔찌를 만들어 완성도 높은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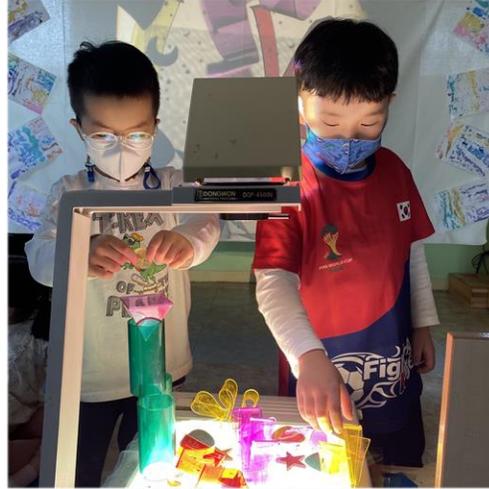
“난 아기 거북이를 만들었어”



“난 풀이 있는 사슴!”



내가 만드는 세상



너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니?

우리가 만약 그림자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슬기튼튼 2반 친구들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할까요?

"우린 우주 공간을 만들고 있어"

"이건 건물이 있는 도시 나라야"

친구와 함께 만든 그림자 세상 속으로 들어가
또 다른 그림자를 만들며 놀이합니다.

"내가 만든 보석 나라에 있는 꽃이야"

"색깔 나라에 나비가 돌아다녀"

"바다 속에 있는 돌고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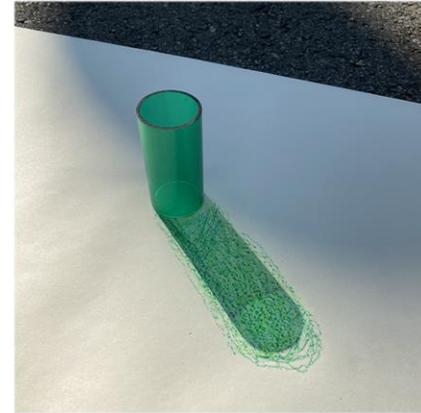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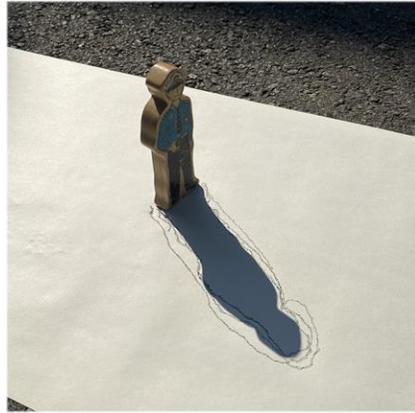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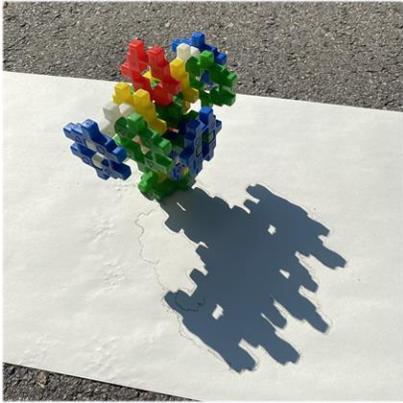


자연의 빛이 만들어주는 그림자

자연의 빛은 어떤 그림자를 만들어줄까?

교실 안의 빛으로 만나는 그림자와 밖으로 나가 직접 만난 빛의 그림자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증을 가지며 빛의 양과 그림자의 길이를 관찰합니다.

“여기서는 그림자 위치를 바꿀 수 없어!”



“와플 블록 사이에 구멍도 그림자로 다 보여!”

“투명한거라서 역시 색이 나오네!”



내가 만든 그림자



“하트가 거꾸로도 나와!”



“난 공룡을 그렸어~”

“내가 그린 토끼 그림이다!”



“얘들아, 난 어떤 그림인지 맞춰봐!”



우리가 그린 그림을 비추어보자!

각자가 그린 그림을 투명 비닐에 붙여 휴지등을 이용해 손전등으로 비추어보며 그림의 그림자를 관찰해봅니다.

내가 그린 그림에도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한 아이들은 검은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놀이하기 시작합니다.

슬기튼튼 2반의 **그림자 극**



우린 어떤 동화로 할까?

역할을 정하자!



“나 해설 하고 싶어!”



그림자 극



동화에 나오는 등장 인물을
그림자로 만들어보자!



“그럼 이제 내가 맡은 고양이를 그려볼까?”